

“아버지가 보여준 5·18 참상 사진이 ‘소년이 온다’ 쓰게 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창작 모티브 “십대 어린 나이였지만 오월 참혹한 모습들 인간의 존엄 깊이 숙고”

“제가 작품을 썼기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년과 80년 광주를 체험했던 시민들이 작품을 썼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글을 쓰는 동안 저의 삶을 온전히 그분들께 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다.”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강의 창작을 그린 소설 ‘소년이 온다’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광주 참상을 그린 ‘소년이 온다’도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기자는 한강 작가와의 통화에서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된 배경, 해외 번역 출간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는 열세 살 때 아버지(소설가 한승원)가 보여준 사진첩에서 얻었다”며 “그 사진첩에는 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이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가져온 사진첩에는 죽은 이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총상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칼에 찢겨 깊게 패인 상처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돼 있었다.

한강 작가는 “비록 십대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사진첩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떠한 희생도 가혹한 폭력은 어떤 소년의 내면에 깊이 침윤됐는지 숙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에는 한강 작가가 참혹한 사진들을 보고 받았던 충격이 기술돼 있다.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났다”는 표현이 이를 방증한다.

아마도 얼마전 떠나온 고향 광주에서 발생한 무참하면서도 가혹한 폭력은 어린 소녀의 내면에 깊이 침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은 작품을 통해 인간의 폭력과 잔혹함, 상처와 회복의 문제에

전착했던 것은 그러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스웨덴 한림원은 노벨문학상의 선정 사유에 대해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년이 온다’의 중심 서사는 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의 광주와 그 이후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 5·18 당시 시위대 속에 있었던 친구의 시신을 찾는 소년(중학생) 동호의 이야기이다. 시위대에서 행진을 하던 정대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죽게 된다.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동호는 이후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는다. 합동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매일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을 도우며 어린 소년은 시신에서 ‘어린 새’ 한 마리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백지연 문학평론가는 “우리가 ‘붙어아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신형철 평론가는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이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6일 광주 북구 중흥도서관에서 열린 ‘한강이 궁금해’ 행사에 참석한 문인 북구청장과 흥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꽃말을 들고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월어머니집 “5·18 아픔 보듬어준 한강 작가에 감사”

노벨상 축하메시지 현수막 서명 ‘소년이 온다’ 5·18 세계에 알려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의 당사자들인 오월 어머니들이 한강 작가에게 각별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세오월어머니집은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화해갤러리에서 열린 ‘오월어머니들의 그림농사’ 전시회에서 한강 작가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를 열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장인물들과 같이 5·18로 인해 가족을 잃은 등 오월 어머니들의 아픔을 세계인들과 나눌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는 의미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비롯한 13명의 오월 어머니들은 이날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만들었다. 오월 어머니들은 마음을 담아 현수막에 자필 서명을 남겼다.

현수막은 보성군에서 마(麻) 농사를 짓고 있는 이찬식씨가 직접 만들어 무상 기부한 ‘전통한지’로 만들었다. 이씨는 여순사건 때 부친을 잃은 국가폭력 피해자이기도 하다.

오월 어머니들은 현수막을 전시회장 한 쪽 벽면에 전시하고, 현수막 아래 LED 촛불을 놓아 두었다. 이는 오월어머니집에서 미술치료 수업을 같이 받다 최근 별세한 오월 어머니 3명(김순삼·박순금·박화순씨)을 추모하는 의미다.



오월 어머니들이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필로 쓴 현수막을 들고 한강 작가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오월어머니집 제공>

김형미 관장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직접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와 어머니뿐 아니라, 오월 어머니들은 모두 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44년 세월을 이겨내 왔다”며 “어머니들의 아픔과 슬픔을 광주를 넘어 세계로 알리고 보듬어 준 한강 작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며, 전시에서는 오월 어머니들이 매주 수요일 주홍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치료를 통해 만든 그림, 옷 등 작품 20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소설은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운 중학생 동호와 그

후 남거진 사람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 동호는 1980년 5·18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매일 도청에 나가 시민군 시신 수습 등을 도운 문열사의 실제 사연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문 열사는 당시 친구인 안종필 열사와 나란히 2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강 작가는 이후 문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씨를 만나 사연을 듣고 그의 소설에 담았다. 이 작품으로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생샷 성지’ 떠오른 광주호 호수생태원

8000㎡ 규모 군락지 구절초 만개

구절초가 만개한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인생샷 성지’로 떠오르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조성한 8000㎡ 규모 군락지에 구절초가 만개해 다음 주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올해 극심한 무더위로 개화시기가 늦어진 호수생태원 구절초는 최근 서늘한 가을 날씨 영향으로 만개했다.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되기도 한 광주호 호수생태원에는 요즘 가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구절초를 비롯한 국화, 메리골드, 천일홍, 페튜니아, 사루비아 등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꽃이 활짝 피면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한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수목 6만5000주, 초화류 18만7000본과 생태습지, 자연관찰대, 구절초 동산 등 테마별 단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수선화·노란꽃망초, 여름철 금사매·수련, 가을철 꽃무릇·구절초 등 다양한 초화류들이 식재돼 사시사철 계절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또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버드나무 군락지, 습지 등 다양한 동·식물 생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이나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광주서 첫 개최

21~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1~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류회의는 한중일 지방정부 우수시책 발굴·공유,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3개국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행사로 광주에서는 처음이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양완밍 중국 인민대회우호협회 회장, 야스다 미츠루 일본 자치단체 국제화협회 이사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첫날 개회식, 22일 분회에 이어

23~24일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광주비엔날레 등을 찾아 지역 산업과 문화를 체험한다.

분회에서는 주한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기존 강연회와 강 시장은 ‘북한관계 해결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신뢰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한중일 도시 및 시민교류 활성화, 스마트 도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루는 세션별 토론도 이뤄진다.

또 각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만들기 ▲한중일 도시 및 시민교류 활성화 ▲스마트도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 한중일 지방정부의 우수정책 소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계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궁당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조약영(800531-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목련로2번길 29-46, 203호(산정동)

피상속인 망 조약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10월 10일 10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0월 17일

- 상속인 : 조양옥(501101-1XXXXXX) 서울 노원구 마들로 111, 27동 106호 (월계동, 월계삼호아파트)
- 신고기간 : 2024. 10. 17. ~ 2024. 12. 2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조양옥의 주소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4. 10. 16.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 305,000,000원 중 금65,000,000원을 감소하여 금24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30,500주를 24,000주로 할 것을 결의하고, 6,500주를 무상소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현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녹목로 3026
대표이사 김수경

kwangju.co.kr

고려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4 조대부고인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2024. 10. 20(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봉규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칼 빌딩, 바닥 628㎡ 대형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차량간 400원, 6개월 후 10년 임대료, 운동인구 많은 빌딩 / 투자가치 최고
약국, 내과(의사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8.13%)

매매가 78억 은행
42억5천 / 보9억 4천 포함
인수가 26억 1천

010-3646-8700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된
062.227-9600